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水仙花 이미지

배다니엘*

目 录

- I. 서 론
- II.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수선화 양상
 - 1. 세속을 초월한 신녀의 이미지
 - 2. 곱고 청아한 외모의 소유자
 - 3. 기품 있는 절조와 의식의 투영 대상
- III. 결어

I. 서 론

중국의 水仙花(Daffodils)는 石蒜科 水仙屬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약간 습한 땅에서 잘 자라며 땅속줄기는 검은색으로 양파처럼 둥글고 잎은 난초 잎같이 선형으로 자란다. 꽃은 12-3월경 꽃줄기 끝에 6개 정도가 옆을 향해 피는데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므로 역대 문인들은 흔히 수선화를 매화와 함께 노래하기도 하였다. 수선화는 매우 곱고 단아한 자태를 지녔다. 가늘고 긴 줄기에 난초 같은 잎이 길게 드리워져 있고 여섯 장에 달하는 흰 꽃잎의 자태가 아름다우며 꽃잎 위에 노란색 술잔 모양의 꽃받침(副花冠)이 있어 더욱 고아한 모습을 지녔다. 특히 수선화의 이 술잔 모양 꽃받침을 보고 詩酒를 좋아하는 중국문인들은 ‘金盞銀臺’로 비유하며 미감을 투영하여 왔다. 수선화는 지중해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의 꽃은 서양 수

* 남서울대 중국학과 교수

선화종이며 기타 여러 종이 중국과 아시아에서도 전파되고 재배되어 왔다.¹⁾

水仙花에 대한 중국 최초의 기록은 晚唐 殷成式의 『酉陽雜俎』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로마제국에서 들어온 식물로 뿌리는 계란 만하며 잎은 서너 척에 달하고 마늘처럼 가운데 줄기가 있고 줄기 끝에서 여섯 장의 꽃잎이 개화한다.”²⁾는 기록으로 보아 외국에서 들여와 전파한 식물로 추측할 수 있다. 중국에서 수선화는 천여 년의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잎과 줄기가 양파와 마늘과 비슷하여 六朝시대에는 ‘雅蒜’으로 불리었고³⁾ 宋代에는 ‘天葱’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으며⁴⁾ 그밖에 ‘金盞’, ‘銀臺’, ‘儷蘭’, ‘雅客’, ‘女星’ 등 외양과 이미지와 연관된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서양에서 수선화는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즘(Narcissism)’⁵⁾ 이미지가 강하며 중국에서는 ‘물의 선녀(水仙)’⁶⁾라는 이름처럼 각종 고사와 연관된 신령한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 1) 수선화(학명: Chinese Narsissus, 서구문학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Daffodils로 호칭)는 원산지와 종이 다양하여 원래의 종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중간 잡종을 통하여 약 200품종 이상이 나와 있고 원예적 분류는 꽃 모양을 기준으로 11가지 형으로 나눈다. 중국에서는 재래종 수선화를 ‘中國水仙’이라고 부르며 중국의 수선화는 전통적으로 ‘金盞銀臺’와 ‘玉玲瓏’ 두 개의 품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金波, 『花卉寶典』(北京: 中國農業出版社, 2006. 1.) 제149쪽 참조) 수선화의 분포범위는 넓지 않은 편인데 漳州의 園山이 특히 유명한 자생지로 알려져 있다.
- 2) 殷成式, 『酉陽雜俎』「廣東植第三·木篇」: “捺襖出拂林國, 根大如鷄卵, 葉長三四尺, 似蒜, 中心抽條, 莖端開花, 六出, 紅白色, 花心黃赤不結籽, 冬生夏死. 取花壓油, 塗身去風氣, 拂林國王及國內貴人皆用之.”
- 3) 明代 『長物志』: “수선화는 육조시대에 雅蒜이라 불리어졌다.(水仙, 六朝人呼爲雅蒜.)”(高峰, 「論中國古代的水仙文學」(南京師大學報, 2008. 1. 제1기, 재인용)
- 4) 宋代 『南陽詩注』: “이 꽃은 밖이 희고 가운데가 노란 색이며 줄기가 파처럼 비어 통하고 본래 무당산 계곡에서 자라났는데 현지인들이 天葱이라 불렀다.(此花外白中黃, 莖干虛通如葱, 本生武當山谷間, 土人謂之天葱.)”(高峰, 「論中國古代的水仙文學」(南京師大學報, 2008. 1. 제1기, 재인용)
- 5) 수선화의 屬名인 나르키수스(Narcissus)는 그리스어의 옛 말인 ‘narkau(취면성)’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이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물속에 빠져 죽은 그 자리에 핀 꽃이라는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도 한다.
- 6) ‘水仙’이라는 명칭은 각종 신비한 어감을 창출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물가에 피며 성장에 많은 물이 필요한 생태적 특성과 연관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꽃말과 연관하여 중

唐代 이전에 ‘水仙’이라는 이름이 각종 시문에 등장하기는 하나 唐代까지 ‘水仙’은 주로 ‘水中女神’의 의미로 활용되어 왔으니⁷⁾ ‘洛神’, ‘湘妃’, ‘漢濱仙女’, ‘姑射仙’, ‘玉清’, ‘素娥青女’, ‘玉霄’ 등의 仙人과 연관된 수선화의 여러 별칭이 이를 반증한다.

역대 문인들에 의해 ‘水神’의 의미로 활용되던 ‘水仙花’가 꽃의 의미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宋代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⁸⁾ 宋代 黃庭堅은 수선화에 관심을 갖고 시를 쓴 중국 최초의 수선화 음영시인인데, 이는 黃庭堅보다 불과 여덟 살 많은 蘇軾이 그의 문집에서 ‘水仙’이라는 명칭을 ‘水中女神’의 의미로만 활용하였던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⁹⁾ 이후로도 백화가 시든 겨울에도 水仙花는 松, 竹, 梅에 뒤지지 않는 생명력을 지녔음을 주목한 문인들은 水仙花를 소재로 한 詩畫 작품을 즐겨 창작하게 되었고 적당한 햇볕과 온도, 물만 있으면 화분에서도 잘 자라는 꽃으로 인식하여 분재로도 많이 기르면서 애호하여 왔다. 宋代에 와서는 수선화를 노래한 詩詞 작품이 140여수에 달할 정도¹⁰⁾로 공전의 성황을 이루게 되었으니 宋代는 후대 수선화 시가창작의 선도

국에서는 ‘다정’, ‘그리움’, ‘길상’, 서양에서는 ‘자기애’, ‘그리움’, ‘순결’의 이미지가 있다.

- 7)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全唐詩』에 ‘水仙’ 어휘는 총 22회 등장한다. 그런데 ‘水仙’ 어휘가 활용된 의미를 보면, 杜甫, 「桃竹杖引贈章留後」: “뿌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내니 자옥과 같고, 湘江의 복비 여신도 얻지 못해 아쉬워할 듯.(斬根削皮如紫玉, 江妃水仙惜不得.)”, 李商隱, 「板橋曉別」: “물의 여신은 잉어를 타고 가려하고, 한밤의 부용은 붉은 눈물을 잔뜩 흘리누나.(水仙欲上鯉魚去, 一夜芙蓉紅淚多.)” 등으로 모두 ‘물의 선녀’, ‘물의 여신’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 8) 柴繼紅, 「試論宋代的水仙文化」(名作欣賞, 2010. 10.): “大量吟詠水仙的詩作始於宋代, 宋士人崇尚理學, 喜歡從自然界中探究、體驗生活的哲理, 所以自然界中常見的花草很容易成爲他們詩中的意象, 以寄托他們的人生價值與人格理想, 而水仙以其色、香、味、態以及深切的寓意深得宋代文人的喜愛.” 참조.
- 9) 侯榮榮, 「水仙」, (文史智識, 2012. 1.): “寫水仙花詩最早、也是最多最好的, 當屬北宋黃庭堅. …… 可作佐證的是, 僅長於黃庭堅八歲的蘇軾, 集中出現的‘水仙’一詞, 依然是傳統的‘水中女神’意象, 與花卉無關.”
- 10) 朱明明, 「中國古代文學水仙意象與題材研究」(南京大 碩士論文, 2008. 8.) 제7쪽: “據作者對『全宋詞』與『四庫全書』的統計, 宋代專題詠水仙詩大約有一百多首, 另外還有散句若干, 詠水仙詞四十多首, 說一篇, 賦三篇.” 참조.

시기였으며 동시에 수선화 음영에 있어 황금기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중국 ‘十大名花’¹¹⁾의 하나로 칭송되며 신령하고 영롱한 神女, 깨끗하고 단아한 품모와 기품의 소유자, 歲寒의 인고를 간직한 강렬한 생명체 등 각종 미감의 상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수선화가 역대 시가작품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하는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수선화의 묘사양상을 관념적 이미지, 실체적 자태, 시인 의식의 투영 양상 등의 세 방면을 통해 고찰하여 봄으로써 역대 시가에서 묘사된 수선화 이미지의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국시가 중에서 수선화가 지닌 미학적 의미를 정리하는 것은 문학작품에서 언급된 각종 화목에 대한 전반적 연구에 있어 하나의 기초적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II.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수선화 양상

水仙花는 일반적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기 즉 봄의 길목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신춘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이다. 희고 노란 빛깔로 물가 습지를 환하게 수놓고 있어 봄의 서정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마음에 신선한 감흥과 역동하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분재의 형태로 청아한 기품을 자랑하며 서재의 문향을 드높이는 역할도 맡기도 하였다. 맑고 평온한 봄기운을 대변하는 동시에 문인들의 마음에 신선하고 맑은 기를 선사해온 꽃인 것이다. 그런 점으로 인해 시가를 통해 발견되는 역대 문인들의 수선화에 대한 이미지는 ‘세속을 초월한 신녀의 이미지’, ‘천연의 곱고 청아함을 소유한 자태’, ‘남다른 기품과 절조를 지닌 의지의 투영체’ 등

11) 전통적으로 ‘中國十大名花’로 일컬어지는 꽃으로는 蘭花, 梅花, 牡丹, 荷花, 菊花, 月季, 桂花, 杜鵑花, 水仙花, 茶花 등이 있다. 현재 중국은 이 ‘中國十大名花’ 중 梅花에 대해서만 국제등록증을 획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桂花, 銀杏, 臘梅, 荔枝 등의 국제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百大百科 http://baike.baidu.com/view/27173.htm?fr=aladdin#4_16 참조)

의 인식 범주에 들어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수선화가 지닌 관념적인 이미지, 수선화의 실제적인 자태, 수선화를 통한 시인 의식의 투영 등의 관점 등의 세 가지 측면과 연관이 있다. 이 범주에 따른 구분에 의거하여 수선화의 이미지와 중국 역대 고전시가에서 시도된 미감재현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세속을 초월한 신녀의 이미지

역대 수선화에 관한 기술과 묘사를 보면 문인들은 水仙花가 지닌 단아하고 아름다운 자태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꼈을 뿐 아니라 우아한 기품에서 신령한 기운을 발견하였던 것 같다. 수선화의 하얗고 노란 꽃잎과 꽃술은 미녀 머리의 옥비녀 같이 고아한 풍모를 발하고 있고 난초와 같이 여리게 뺨은 푸른 줄기와 잎은 미녀의 허리처럼 하늘거리며 청순한 미감과 가녀린 상상력을 느끼게 한다. 水仙花는 ‘水仙’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신묘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꽃으로 인식되었고 역대 문인들은 수선화의 각종 전설과 고사를 인용하여 水神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경우가 많았다. 水仙花는 일찍이 曹植이 「洛神賦」에서 洛水의 여신 宓妃를 ‘물결 가르는 선녀(凌波仙子)’¹²⁾로 묘사한 것에 영향을 받아 洛水의 여신 ‘宓妃’로 묘사되거나, 屈原이 洛水의 湘夫人을 생각하며 쓴 「湘君」, 「湘夫人」의 구절¹³⁾을 따라 ‘湘水女神’으로 그려지기도 하였고, 鄭

12) 宓妃는 伏羲의 딸로써 황하의 신인 河伯의 아내였으며 洛水를 건너다 빠져 죽어 洛水의 여신이 되었다고 한다. 曹植은 「洛神賦」의 서문에서 “황초 삼년에 나는 경사에서 낙천을 건너게 되었다. 고인이 말하길 이 물의 신하는 북비라 하였기에 송옥의 초왕과 신녀의 고사 같은 감정을 느껴 이 賦를 짓는다.(黃初三年, 余朝京師, 還濟洛川. 古人有言, 斯水之臣, 名曰宓妃. 感宋玉對楚王神女之事, 遂作斯賦.)”라고 하여 洛神을 宓妃라고 밝힌 후 洛神의 자태를 묘사한 바 있다.

13) 堯제의 딸 娥皇과 女英은 舜에게 시집을 가서 각각 后와 妃가 되었는데 舜이 南巡을 하다 죽자 두 사람도 湘江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한다. 상제가 두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 그들의 혼백을 湘江의 水仙으로 삼았고 그들이 臘月 水仙의 花神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屈原은 이 전설을 인용하여 「湘君」, 「湘夫人」 등의 작품을 쓰게 되는데 「湘夫人」의 首句에서 “堯제의 딸 湘夫人이 북쪽 강가에 있네, 아득히 강물 바라보니 근심에 젖

交甫가 漢水에서 두 명의 신녀에게서 패옥을 받았던 고사¹⁴⁾와 관련하여 ‘漢水女神’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역대 시문에서 수선화를 신녀와 관련하여 행한 각종 묘사는 수선화로 하여금 탈속의 기운을 소유한 고매한 꽃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역대 문인들이 수선화를 묘사함에 있어 水神의 이미지를 차용한 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술한 것처럼 수선화를 꽃의 의미로 처음으로 노래한 이는 宋代 黃庭堅이었다. 그는 수선화에 대한 남다른 애호의식을 갖고 여덟 수에 달하는 작품을 남긴 바 있는데¹⁵⁾ 그 중 王充道가 보내온 수선화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면서 수선화를 ‘宓妃’에 비유한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王充道送水仙花五十枝，欣然會心，爲之作詠。」(왕충도가 수선화 오십 그루를 보내와 기쁜 마음에 시를 짓다)

凌波仙子生塵裊	물결 가르는 선녀의 먼지 이는 버선
水上輕盈步微月	물 위에 가볍게 떠 희미한 달빛 밟고 걷는 듯
是誰招此斷腸魂	누가 이 애끓는 혼을 불러서
種作寒花寄愁絕	차가운 꽃으로 심어놓고 수심을 붙였는가
含香體素欲傾城	향기 머금은 자태는 성을 기울이듯 아름답고
山礬是弟梅是兄	산반은 아우요 매화는 형이네
坐對眞成被花惱	마주 앉아 보며 저 꽃에 오롯이 매혹되었다가
出門一笑大江橫	문을 나서 흐르는 큰 강 앞에서 한 차례 웃음 짓네

는 구나.(帝子降兮北渚，日眇眇兮愁予.)”라고 湘夫人을 堯帝의 딸로 형용한 바 있다.

14) 西漢 劉向이 편찬한 『列仙傳』 卷上에는 鄭交甫가 한수에서 만난 두 명의 신녀에게서 패옥을 받았는데 잠시 후 홀연히 패옥과 두 신녀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江妃二女’ 고사가 실려 있다. 『列仙傳』 卷上の 기록은 다음과 같다. “江妃二女者，不知何所人也。出遊于江漢之濱，逢鄭交甫。見而悅之，不知其神人也。……神女遂手解佩與交甫。交甫悅，受而懷之，中當心。趨去數十步，視佩，空懷無佩。顧二女，忽然不見。靈妃艷逸，時見江泥。麗服微步，流眄生姿。交甫遇之，凭情言私。鳴佩虛擲，絕影焉追。”

15) 黃庭堅은 宋 徽宗 元符 四年(1101)에서 崇寧 元年(1102)에 이르는 사이에 특히 수선화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한 작품을 남겼다. 그가 남긴 하여 작품은 「次韻中玉水仙花二首」, 「王充道送水仙花五十枝欣然會心爲之作詠」, 「吳君送水仙花并二大本」, 「劉邦直送早梅水仙花四首」 등이다.(侯榮榮, 「水仙」, (文史智識, 2012. 1.) 참조)

수선화를 ‘물결 가르는 선녀(凌波仙子)’¹⁶⁾ 즉 洛水의 여신 宓妃로 묘사하여 신비로운 자태를 강조한 점이 돋보이는데 이 묘사가 강렬하여 후대 많은 문인들 역시 수선화를 여신의 이미지로 많이 활용하게 된다. 이어 洛神의 슬픈 영혼에 주목한 ‘斷腸魂’, ‘寒花’ 등의 감정을 수선화에 투영하였는데 이 필범은 이 시에서 ‘애끓는 혼(斷腸魂)’-‘수심을 붙이다(寄愁絕)’-‘고뇌(惱)’로 연결되며 수선화의 비애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수선화를 山礬¹⁷⁾과 매화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아름다움을 부각시킨 후 洛神 고사와 연계된 꽃의 슬픈 감동에 젖어 있던 작자가 큰 강을 보고 일시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밝은 상황을 그렸다. 수선화는 애상의 격조를 담고 있지만 친우가 보내온 꽃과 강물을 보노라니 어느덧 시제의 언급처럼 ‘기쁜 마음을 얻게 되는(欣然會心)’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黃庭堅이 劉邦直이 매화와 함께 보내온 수선화를 보고 쓴 다음 작품 역시 수선화와 신녀를 연관한 묘사를 가하고 있다.

「劉邦直送早梅水仙花」(劉邦直이 보내온 早梅와 수선화)
 得水能仙天與奇 물을 얻으면 하늘의 선녀처럼 기이한 모습
 寒香寂寞動冰肌 얼음 같은 살결에서 차가운 향기가 조용히 훑날리네
 仙風道骨今誰有 이 꽃의 仙道 같은 기풍 이제 그 누가 지녔는가
 淡掃蛾眉簪一枝 꾸미지 않은 미인의 머리에 꽂힌 한 개의 비녀 같으니

水仙花가 지닌 청고하고 기묘한 풍취를 그림에 있어 하늘의 선녀 이미지를 활용하였고 이어 맑은 꽃잎에서 훑날리는 향기를 얼음 같은 살결과 차가운 향기로 형용하여 신비감을 증폭하였다. 미인의 머리에 꽂힌 비녀처럼 오흘 솟

16) 이 시어는 曹植 「洛神賦」에서 洛神의 자태를 형용함에 있어 “물결 가르는 작은 걸음, 비단벼선에 먼지이네.(凌波仙子, 羅袜生塵)”라고 하면서 물 위에 있는 여신과 그 자태를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물안개를 함께 표현한 구절을 활용한 것이다.

17) ‘山礬’은 원래 이름이 ‘鄭花’로써 수 척 높이의 나무에서 자라는 장미과 꽃인데 봄에 흰색이나 옅은 황색 꽃이 피고 좋은 향기를 지녔다 한다. 鄭花라는 이름이 너무 속되다고 하여 黃山谷이 그 이름을 山礬으로 고쳤다는 설이 있다.(기태완, 『花情漫筆』, (서울, 고요아침, 2007.) 제30쪽)

아있는 화관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천연의 미를 느끼게 된다. 수수하되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 자연미를 지닌 수선화의 자태를 신녀와 미인으로 같음하고자 하는 것이다.

曹植의 「洛神賦」에서 영감을 받아 수선화를 묘사한 宋代 黃庭堅을 필두로 후대 문인들 역시 수선화를 여신에 비유하여 묘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宋代 張孝祥이 지은 다음 작을 보자.

「以水仙供都運判院」(수선화를 비유하여 도운판원에게 드리는 시)
 玉壺寒露映眞色 옥 항아리에 차가운 이슬 맺혀 본연의 색 빛나고
 霧閣雲窗立半身 선녀가 연무 낀 누각과 구름 낀 창에 반쯤 모습을 드러낸 듯
 可但凌波學仙子 낙수 여신이 선녀로 화한 것처럼
 絕憐空谷有佳人 빈 계곡에 가인이 있어 실로 사랑스러워라

수선화의 희고 깨끗한 색감과 자태를 칭송하였는데 그 아련한 모습은 선녀가 연무 낀 누각과 구름 낀 창에 반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듯 실로 신묘한 경지를 창출하고 있다. 제3,4구에서 曹植의 「洛神賦」와 杜甫의 「佳人」시를 인용하여 수선화를 ‘凌波仙子’와 ‘空谷佳人’¹⁸⁾에 비유하여 새롭게 미감을 증폭하고자 한 시도가 시선을 끈다. 아스라이 발하는 수선화의 몽롱한 미감과 고상한 기품을 투영하기 위해 신화와 전고를 이입한 것인데 이 절묘한 상상력으로 인해 수선화의 이미지는 더욱 絶俗의 경지를 지니게 된다.

宋代 劉攽의 수선화 작품 역시 신녀의 이미지를 추구하였는데 이 시에서는 水神이 아닌 달의 여신 嫦娥를 등장시키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水仙花」(수선화)
 早于桃李晚于梅 매화보다는 늦으나 桃李보다는 일찍 피어나
 冰雪肌膚姑射來 얼음 같은 흰 피부의 선녀가 하강한 듯

18) 杜甫, 「佳人」: “절세에 아름다운 이 있어, 허정한 계곡에 유거한다네.(絶代有佳人, 幽居在空谷.)”

明月寒霜中夜靜 맑은 달빛과 차가운 서리 맞고 이 밤에 고요히 피어나
素娥靑女共徘徊 嫦娥와 靑女는 함께 배회하고 있는 듯

차가운 기운을 이겨내며 매화에 이어 개화하는 수선화의 품성을 노래하면서 선녀의 얼음같이 맑고 고운 피부 같은 자태도 함께 칭송하였다.¹⁹⁾ 후반부를 보면 시인은 수선화가 자라나는 환경을 더욱 주목하고 있음이 보인다. 차가운 서리 맞고 피어난 수선화는 맑은 달빛 속에서 고요한 품성을 발하고 있어 마치 嫦娥와 같은 신령한 의경을 연출한다. 수선화가 지닌 신령하고도 고결한 기품을 칭송한 시인 것이다.

明代 袁宏道는 수선화의 모습을 형용함에 있어 『山海經』에 나오는 神木 ‘扶桑나무’와 莊子에 나오는 神人이 산다는 ‘藐姑射山’을 거론함으로써 신령한 이미지를 고조시키고 있다.

「水仙花」(수선화)
琢盡扶桑水作肌 부상나무를 쪼아서 만들고 물로 피부를 만든 듯
冷光眞與雪相宜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 실로 흰 눈 같은 모습
但從姑射皆仙種 姑射山으로부터 신선이 가져다 심은 것이니
莫道梁家是侍兒 梁玉淸을 직녀의 시녀로만 말하지 말지니

허구적 필법으로 수선화의 자태를 설명한 점이 이 시의 가장 독특한 점이니 수선화의 모습은 神木 扶桑나무²⁰⁾로 만들어지고 ‘그 피부는 물로 만든 듯하다’는 제1구의 표현은 실로 이채롭다. 제3구의 ‘姑射’는 피부가 빙설과 같은 미모를 지닌 神人이 산다는 ‘藐姑射山’을 지칭한 것인데²¹⁾ 이 수선화는 신선

19) 이 시의 제2구 “얼음 같은 흰 피부의 선녀가 하강한 듯(冰雪肌膚姑射來)” 구절에 대해 趙慧文은 『歷代詠花草詩詞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5.) 제17쪽에서 “‘冰雪肌膚姑射來’是贊水仙的名句, 此詩載于「芥子園畫傳」中.”이라는 해설을 가해 놓아 참고가 된다.

20) 『山海經·海外東經』의 “양곡 위에 부상나무가 있는데 십 일 동안 태양이 목욕하는 곳이다.(湯谷上有扶桑, 十日所浴).”에 대해 郭璞은 “부상은 나무이다.(扶桑, 木也.)”라는 주를 달았고 『說文解字』에서는 “부상은 신목으로 해가 뜨는 곳이다.(搏桑, 神木, 日所出也.)”라는 해설을 가하고 있다.

21) 『莊子·逍遙游』: “막고사산에는 신선이 기거한다. 그 피부는 빙설과 같고 부드러운

이 藐姑射山에서 가져와 심었다 할 정도로 신령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수선화가 비록 작고 유약하지만 梁玉清 같은 시녀의 위치를 넘어 절로 ‘花中之仙’의 반열에 올라있는 존재인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水仙花와 神女, 神仙의 이미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위에서 예거한 것처럼 역대 여러 시가에서 ‘洛水의 여신 宓妃’, ‘湘水女神’, ‘漢水女神’, ‘藐姑射山の 仙人’ 등으로 표현된 것 이외에도 宋玉의 「高唐賦」에 나오는 ‘巫山神女’,²²⁾ 屈原,²³⁾ 男水神 琴高,²⁴⁾ 洛神과 湘妃의 조합,²⁵⁾ 洛神과 漢女の 조합²⁶⁾ 등 각종 신령한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水仙花가 ‘水仙’의 한자어와 같은 표현을 씀으로써 일차적으로 신선의 형상을 떠올리게 한 것도 있지만 수선화의 자태가 그만큼 신령하고 초

치녀와 같다.(藐姑射山, 有神人居焉, 肌膚若冰雪, 淖約若處子.)” 구절 참조

22) 戰國시대 宋玉이 「高唐賦」에서 “昔者先王嘗游高唐, 怠而晝寢. 夢見一婦人, 曰: ‘妾巫山之女也, 爲高唐之客. 聞君游高唐, 願荐枕席.’ 王因幸之. 去而辭曰: ‘妾在巫山之陽, 高丘之阻, 旦爲朝雲, 暮爲行雨, 朝朝暮暮, 陽臺之下.’”라고 한 기록에 근거하여 宋代 高文虎는 「水仙」一首에서 “아침저녁으로 양대를 향하여 눈물 흘리나니, 근심이 다하고 혼이 얼어 한 잔 물이 되었구나. 무협의 구름은 깊어 어제의 꿈을 아득하게 하고, 소상강의 눈은 두터워 내 슬픔처럼 쌓여 있네.(朝朝暮暮泣陽台, 愁絕冰魂水一杯. 巫峽雲深迷昨夢, 瀟湘雪重寫余哀.)”라고 읊은 바 있다.

23) 晉 王嘉 「拾遺記洞庭山」의 “굴원은 충성심으로 인해 배척을 받아 호숫가에 은거하게 된다. …… 급기야 맑고 차가운 물에 투신하게 된다. 초나라 사람들은 그를 사모하여 수신이라 불렀다.(屈原以忠見斥, 隱于沉湖, …… 乃赴清冷之水. 楚人思慕, 謂之水仙.)”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宋代 劉克莊은 「水仙花」에서 “굴원의 혼은 물에 가라앉아 상수의 객이 되었다.(騷魂洒落沉湘客)”라는 표현을 가하고 있다.

24) 琴高는 「列仙傳」에 “세상을 떠나 홀로 한가로이 살다가 탁수로 들어갔다. 붉은 잉어를 타고 맑은 물결 속을 노닐었는데 물 따라 자유롭게 다니는 낙이 무궁하였다.(離世孤逸, 浮沉琢中. 出躍欸鱗, 入藻清冲. 是任水解, 其樂無窮.)”라는 기록처럼 붉은 잉어를 타고 涿水로 들어갔다는 水神의 이름이다. 宋代 韓維가 「從厚卿乞移水仙花」 시에서 “금고가 사는 곳은 원래 물을 의지하는 곳이요, 수선화는 겨울이 와도 서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琴高住處元依水, 靑女冬來不怕霜.)”라고 하면서 수선화와 금고를 함께 묘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25) 宋代 曾丰 「譚賀州勉賦水仙花四絕」: “물과 수증기가 봄을 더욱 물들이나니, 상비와 낙수의 여신이 이 꽃의 전신이다.(與水相蒸暖盎春, 湘妃洛女是前身.)”

26) 宋代 徐淵子 「七言散句」: “새벽바람이 낙포에 불고 물결을 가를 때, 저녁달이 강 언덕에 비추고 漢女가 쾌옥을 풀러 줄 때이구나.(曉風洛浦凌波際, 夜月江臯解佩時.)”

매한 기품을 지녔음을 주목하여 절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가한 이미지의 형상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2. 곱고 청아한 외모의 소유자

수선화는 宋代에 들어와 공전의 주목을 받으며 詠花詩의 중요한 소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의 여신(水仙)’이라는 이미지는 무한한 매력을 자아내지만 꽃 자체에 대한 묘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분히 허상의 이미지가 느껴진다. 문인들이 수선화를 묘사한 작품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면면을 보면 수선화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수선화가 지닌 꽃, 줄기, 뿌리, 잎 등 본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실체를 각종 수사기교를 통해 세밀하게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하얀 꽃받침 위에 도도하게 자리 잡고 있는 노란 화관의 생김새를 주목하여 ‘金盞銀臺’, ‘玉盤金盞’ 등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여유 있게 늘어선 잎의 모습을 ‘부추 잎’이나 ‘녹색 요대(綠帶)’, 오롯이 서 있는 줄기를 ‘옥 가지(玉枝)’, 양파나 마늘 같이 실하게 생긴 구근을 보고 ‘葱根’, ‘雅蒜’, ‘天葱’으로 형용하는 등 수선화의 각 부분이 지니고 있는 개성적인 모습에 착안한 각종 표현을 창출한 바 있다. 또한 수선화의 색과 향에도 빠짐없는 묘사를 가하였으니 白, 綠, 黃의 세 가지 색깔로 구성된 수선화의 전체 색감과 이 색상이 주는 청아하고도 소담한 미감을 노래하기도 하였고, 겨울을 지나며 은은한 清香을 오랜 시간 품어내는 수선화의 향기와 기품을 부각시키기도 하였으며, ‘金盞銀臺’, ‘玉盤金盞’ 등의 별칭으로 대변되는 金, 銀, 玉 등의 보배로운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른 어떤 꽃에도 뒤지지 않는 귀한 가치를 찬양하기도 하였다. 수선화의 자태, 색, 향, 기질 등 실제적인 자태를 주목하여 쓴 작품들을 몇 수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黃庭堅이 徽宗 建中 靖國 元年(1101)에 四川에서의 6년 疇적생활을 마감할 때 三峽을 떠나 荊州(湖北 江陵)에 잠시 머물면서 荊州知州 中玉 馬臧과 창화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수선화를 소재로 시를 썼던 「次韻中玉水仙花二首」

의 제1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次韻中玉水仙花二首」其一 (중옥의 수선화에 차운한 시 두 수) 제1수
 借水開花自一奇 물을 빌려 꽃을 피우니 절로 빼어나고
 水沈爲骨玉爲肌 沉香木으로 뼈를 이루고 옥으로 살결을 이루었네
 暗香已壓酴醾倒 암향은 도미를 완전히 압도하나
 只比寒梅無好枝 다만 한매에 비하면 좋은 가지가 없구나

수선화의 고아한 정신과 성격을 비유와 대비의 수법을 통해 그려냈다. 수구에서 물을 빌려 꽃을 피어냈다 함은 수선화의 구근을 화분에다 심고 수경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²⁷⁾ 수선화에 대한 황정건의 뛰어난 관찰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어 ‘침향(水沈)’으로 뼈를 이루고 옥으로 살결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니 수선화는 선녀의 자질을 지닌 꽃으로 형용하기에 적절한 꽃인 것이다. ‘酴醾’는 장미의 일종으로 초여름에 커다란 꽃이 피고 향기가 빼어나 蘇軾과 韓愈를 비롯한 문인들의 찬양을 받은 바 있으니²⁸⁾ 황정건은 수선화의 암향이 이를 능가한다고 보았다. 말구에서 수선화의 가지가 매화보다 못하다고 한 것은 수선화의 자태와 특징을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하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²⁹⁾

27) 水仙花는 石蒜科의 다년생 초본식물로써 수경재배가 가능하다. ‘借水開花’라는 구절이 특이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재배법이다. 胡仔는 『茗溪漁隱叢話』後集卷31에서 이 구절에 대해 “수선화는 물에서 생겨나지 않으니 비록 水자를 통해 꽃을 형용하려 했으나 도리어 語病이 생겼다.(第水仙花初不在水中生, 雖欲形容水字, 却反成語病.)”라고 하며 지적하였다. 그러나 楊萬里的 「水仙花」 시에 보면 “하늘의 선녀는 땅을 밟지 않으니, 물을 빌려 이름을 드러내었네.(天仙不行地, 且借水爲名.)”라는 구절이 있어 黃庭堅의 이 구절이 語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밝혔다.

28) 蘇軾은 「杜沂游武昌以酴醾花菩薩泉見餉」에서 “요염함을 꾸미지 않아도 이미 절색이요, 바람이 없어도 향기가 멀리 가도다.(不妝艷已絕, 無風香自遠.)”라고 酴醾를 찬양하였고 韓愈는 「惜酴醾」에서 “꽃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이한 향을 토하는 꽃이로다.(花中最後吐奇香)”라고 칭찬한 바 있다.

29) 水仙花를 주제로 한 다른 시 「王充道送水仙花五十枝, 欣然會心, 爲之作詠」一首에서 수선화를 다른 꽃과 비교할 때 “산반은 아우요 매화는 형이네.(山礬是弟梅是兄)”라고 했던 황정건이었으나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風雪에도 꽃꽂이 서있는 매화에 비해 水仙花

范成대가 화병에 피어있는 수선화를 보고 쓴 다음 시를 살펴보자.

「瓶花」(병 속에 핀 꽃)
 水仙攜臘梅 수선화는 납매와 나란히 피어났다가
 來作散花雨 마치 꽃비를 흘날리듯 꽃이 진다
 但驚醉夢醒 그저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면
 大辨香來處 꽃향기 날아오는 곳을 알 수 있으면만

수선화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납매와 함께 피어나서 향기를 날리는 품성을 지녔음을 칭송한 작이다. 시인이 특히 강조한 수선화의 자태는 제2구의 낙화할 때 선녀가 꽃비를 흘뿌리듯 아름답게 지는 모습이다. 꽃이 지는 모습은 시인으로 하여금 아름답고도 처연한 감정을 자아내게 한다. 수선화의 개화를 기다렸다가 낙화를 관찰하고 난 시인은 그윽한 수선화 향기의 여운을 남기고 자 하는 마음으로 神韻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楊萬里的 다음 시는 수선화의 자태 중 홀잎(단엽)과 겹잎(복엽)으로 구분되는 형태적 특성을 주목한 작품이다.³⁰⁾ 楊萬里는 이 시에서 홀잎 수선화의 별명과 형태특징을 언급하였고 ‘겹꽃잎 수선화(千葉水仙花)’에 대한 묘사를 가했기에 이 작품은 수선화의 종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의미도 지닌다.³¹⁾

는 風雪을 견디기에는 柔弱한 가지를 지녔다고 한 것이 비교된다. 수선화가 지닌 유약한 성격이나 陰柔의 美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30) 水仙花는 세계적으로 많은 품종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주로 두 개의 품종으로 구분한다. 하나는 외떡잎식물로 청백색 花冠과 황색 꽃받침이 잔과 같은 형상을 지닌 것으로 ‘金盞銀臺’로 불리며 약 반 달 동안 개화한다. 또 하나는 쌍떡잎식물로 십여 개의 꽃받침이 있고 花冠 아래가 열은 황색과 흰색을 띤 것으로 ‘百葉水仙’ 혹은 ‘玉玲瓏’으로 불리며 약 이십 일 전후의 개화시기를 가진다.

31) 이 「千葉水仙花」 시에는 다음과 같은 「并序」가 기록되어 있어 이 내용을 통해 겹잎 수선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并序」: “세상에서는 수선화를 ‘金盞銀臺’로 별칭한다. 홀잎 수선화는 하나의 술잔 형상으로 짙은 황색의 금빛을 띠고 있다. 천엽 수선화의 경우 꽃잎이 말리고 주름져 한 조각 뽀뽀한 형상을 하고 있고 그 아래 열은 황색과 위의 엷은 흰색이 한데 섞여 있어 이 모습은 실로 술잔의 형상과는 다르니 어찌 옛 명칭으로 불러 욕되게 하리오. 요컨대 홀꽃잎 꽃은 마땅히 옛 명칭으로 불러야하

「千葉水仙花」(천 개의 잎을 지닌 수선화)
 薤葉蔥根兩不差 잎은 엷고, 뿌리는 파와도 비슷한데
 重葳風味獨清嘉 겹꽃잎 늘어진 모습 홀로 맑고 아름답다
 薄揉肪玉圍金鈿 꽃술은 얇고 부드러운 옥이 금비녀를 둘러싼 듯
 淺染鵝黃剩素紗 꽃잎은 열게 물들인 노란색 밑에 흰빛이 도네
 臺盞元非千葉種 홀잎 수선화는 겹잎 수선화와 본래 다르나니
 豐容要是小蓮花 이 풍성한 외모는 작은 연꽃과도 같구나
 向來山谷相看日 그간 황정견의 수선화 작품을 보고
 知是他家是當家 다른 것으로 알았더니 바로 이 모습으로 구나

잎과 뿌리로 시작된 ‘겹잎 수선화(千葉水仙花)’의 묘사가 꽃술과 꽃잎의 색과 형태의 묘사로 이어진다. 꽃을 직접 보지 않고도 겹잎 수선화의 형태를 짐작할 정도로 그 묘사가 세밀하고 비유가 아름답다. ‘金盞銀臺’로 별칭하는 홀잎 수선화와 비교하여 겹잎 수선화의 자태는 한껏 풍성하니 마치 활짝 핀 연꽃과도 같다. 시인의 마음을 끄는 별도의 흥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말연에서는 황정견의 시를 통해 수선화를 간접적으로 감상했던 시인이 현재 직접 관찰함으로써 느끼는 기쁨을 그리고 있다. 허상이 아닌 실체의 모습에서 더욱 진한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다.

수선화는 난초처럼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있으며 화사하면서도 요염하지 않은 천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이다. 예거한 시들을 비롯하여 수선화를 주제로 한 역대 작품들은 수선화의 형, 색, 향 등을 주목하여 각종 비유와 기교를 활용한 다양한 묘사를 가해왔다. 宋代 韋驥는 “가냘프고 아름다워 선녀 같은 자태, 강 언덕에서 패옥을 풀던 때를 연상시키네.(綽約仙姿, 仿佛江臯解珮時.)”(「減字木蘭花·水仙花」)라고 하여 수선화 줄기의 가냘픈 모습을 그렸고, 宋代 李石은 “피부는 마치 가을 물을 잘라다 놓은 듯, 무성히 드리운 잎은 마치 용궁에서 나온 듯.(肌膚剪秋水, 垂雲出龍宮.)”(「水仙花二首」其二)이라 하

나 천엽 수선화는 실로 수선화라는 이름에 걸 맞는 것이다.(世以水仙爲金盞銀臺, 蓋單葉者, 其中有一酒盞, 深黃而金色. 至千葉水仙, 其中花片卷皺, 密蹙一片之中, 下輕黃而上淡白, 如染一截者, 與酒杯之狀殊不相似, 安得以舊日俗名辱之? 要之, 單葉者當命以舊名, 而千葉者乃眞水仙云.)”

여 잎과 줄기의 미려한 자태를 칭송했으며, 元代 錢選은 “새벽 연기 얽은 소매에 횡행한데, 가을 천뢰가 맑게 울리는 듯.(曉烟橫薄袂, 秋瀨韻明璫)”(「水仙花圖」)이라 하여 수선화의 맑은 자태를 ‘秋韻’에 비유하기도 하였고, 明代 梁辰魚는 “그윽한 꽃 피어있는 곳에 달빛 희미한데, 가을 물에 마음을 뺏겨 얽게 화장했네.(幽花開處月微茫, 秋水凝神暗淡妝.)”(「水仙花」)라고 하면서 淸幽한 풍모를 칭송하기도 하였으며, 明代 顧辰은 “금 쟁반에 널리 퍼진 구슬 주머니가 겹겹이요, 바람이니 옥패가 비취빛 요대에 길게 흔들리네.(金盤露積珠襦重, 玉佩風生翠帶長.)”(「題錢山水仙花」)라고 하여 金盤과 玉佩의 영롱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수선화의 미감을 증폭하기도 하였다. 각종 화려한 수식과 비유를 통해 수선화의 실체를 표현하였다는 점은 이 꽃의 외모가 지닌 다면적인 미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3. 기품 있는 절조와 의식의 투영 대상

수선화는 각종 신선고사와 연관된 기술이 반증하듯 신령한 탈속의 경지와 고매한 자태의 이미지가 강한 꽃이다. 물을 배경으로 하는 성장환경은 정결하고 단아한 인상을 갖게 하고, 寒梅와 함께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어내는 것은 氷雪의 강인함을 느끼게 하며, 다른 식물과 달리 꽃잎과 비늘줄기, 뿌리 등이 모두 하얀색을 지니고 있음은 맑은 순백의 기품을 느끼게 한다. 수선화가 지닌 전반적인 풍격은 실로 淸幽한 神韻美를 넘나드는 절조와 품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역대 시문을 보면 수선화를 고아한 기품과 강렬한 의지를 소유한 꽃으로 보고 ‘水月’, ‘風露’, ‘霜雪’ 등의 배경과 함께 孤寂하고 淸冷한 존재로 묘사한 기록이 많다.³²⁾ 여신이나 여성과 연관된 묘사가 많은 것과 연관하여 화사한 봄꽃이 지향하는 ‘陽剛’의 이미지보다는 매화나 난초 같은 절조

32) 朱明明, 「中國古代文學水仙意象與題材研究」(南京大 碩士論文, 2008. 8.) 제35쪽: “從上文對‘水月’、‘風露’、‘霜雪’、與水仙關係的介紹中, 我們知道它一般生長在幽冷孤淸的環境中, 而這孤淸, 又陪伴着水仙的‘幽韻之美.’”

를 내재한 ‘陰柔’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특성은 수선화의 전형적인 품격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문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비애나 절의를 표현하기에 좋은 꽃이라는 인상도 갖게 한다. 강한 절의를 소유하였으되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인고의 세월을 보낸 淸幽한 감성을 은은하게 투영하고 싶을 때 수선화는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기 매우 적절한 자연물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수선화가 지닌 이미지와 실체를 묘사한 작품을 예거한 것에 이어 본 절에서는 시인들이 이 꽃을 보며 어떻게 자신의 절조와 의식을 연계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수선화의 기품 있는 절조와 이 모습 속에 담은 시인의 감정투영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黃庭堅이 中玉의 수선화에 차운한 시 두 수 중 세속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유락한 상태로 민가에 피어있는 수선화를 주목한 제2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는 수선화의 빼어난 절조를 읊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웃에 사는 빈한한 집안의 미녀와 자신의 신세를 대비한 비감을 수선화에 투영하는 ‘托物寓意’의 목적을 띠고 있는 작품이다.

「次韻中玉水仙花二首」其二 (중옥의 수선화에 차운한 시 두 수) 제2수
 淤泥解作白蓮藕 진흙 속에서 능히 백련 뿌리가 돌아나고
 糞壤能開黃玉花 거름더미에서도 황옥화가 피어나네
 可惜國香天不管 가엽도다 이 국향을 하늘이 관리하지 않아서
 隨緣流落小民家 인연 따라 가난한 민가에서 유락하나니

시 중에 나오는 ‘國香’은 山谷이 형주에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 목격한 이웃집 예쁜 소녀의 이름으로³³⁾ 수선화와 黃庭堅 자신을 지칭하는 쌍관어 역할을 하고 있다. 비천한 집에 태어나 아랫마을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간 이 여인

33) 이 시에는 “당시 민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들었다.(時聞民間事如此)”라는 주가 달려있다. 또한 張邦基『墨庄漫錄』卷10에는 이에 대해 “山谷在荊州時，鄰居一女子閑靜妍美，綽有態度，年方笄也。山谷殊嘆惜之。其家蓋閭閻細民。未幾嫁同里，而夫亦庸俗貧下，非其偶也。山谷因和荊南太守馬城中玉「水仙花」詩……蓋有感而作。後數年此女生二子，其夫鬻于郡人田氏家，憔悴困頓，無復故態。然猶有餘妍，乃以國香名之。”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의 유락한 신세는 四川과 荊南 일대에서 폼적생활을 진전한 자신의 불우한 신세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수선화의 진면목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洛神의 전설을 담고 있는 수선화는 깨끗한 품성과 맑은 향기를 지닌 꽃이나 때로는 이처럼 거름더미에서 꽃을 피우며 애상을 자아내기도 하니 연뿌리에서 수선화로 이어지는 소재의 전화는 이웃집 여인을 거쳐 자신의 신세를 기탁하는 교묘한 구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³⁴⁾ 단순하게 꽃의 형태를 묘사하는 차원을 넘어 寓意를 기탁하는 수법을 지향한 작품이라 하겠다.

陳與義가 그린 水仙花는 야생의 수선화에서 천연의 미와 기품을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내면의 품격을 칭송한 작이다.

「詠水仙花五韻」(수선화를 다섯 운으로 노래한 시)
 仙人緗色裘 선녀와 같은 이 꽃 꽃술은 담황색 깃옷 같고
 縞衣以楊之 꽃잎은 하얀 색 겉옷을 걸치고 있는 듯
 靑幌紛委地 잎은 파란 색 노리개 땅에 드리운 듯
 獨立東風時 동풍이 불어올 제 홀로 서있네
 吹香洞庭暖 따듯한 동정호에 향기 날리고
 弄影淸晝遲 흔들리는 꽃 그림자에 맑은 한낮 더디 간다
 寂寂籬落陰 싸릿대에 그늘이 지니 분위기 쓸쓸한데
 亭亭與予期 이 꽃만이 늙름하게 나와 만날 기약 한다
 誰知園中客 동산 안에 한 객이 있어
 能賦會眞詩 다정하게 會眞詩를 지을 줄 그 누가 알았으리오

이 시를 지을 당시 陳與義는 岳陽에 있었는데 동산 주변에서 우연히 이 꽃을 발견하고 이 꽃에 대해 고독한 중에 맑고 고운 품격을 지녔음을 칭송하게 된다. 수선화의 고운 자태와 기품 있는 향기를 차례로 묘사한 후 본인의 형상을 꽃과 대비하였는데 고아한 풍취와 다정한 會眞詩³⁵⁾를 짓는 인물로 자신을

34) 方東樹는 『昭昧詹言』 卷11에서 이 시에 대해 “무릇 짧은 문장으로 차츰 범위를 넓혀 나가는 수법을 쓰고 있으니 …… 山谷의 시는 이와 같은 것이 많다.(凡短章, 最要層次多, …… 山谷多如此.)”라는 평을 가하고 있다.

35) 「會眞詩」는 元稹의 『鶯鶯傳』에서 張生이 崔鶯鶯에게 써주면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시로써 이 시를 통해 자신의 남다른 정을 투사하고 싶었음을 살필 수 있다.

묘사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음이 보인다. 야생의 수선화는 분재와 비교되는 천연의 미와 기품을 지니고 있다. 이 수선화의 우아한 자태에 맞추어 선녀가 춤추는 듯 그림자도 흔들리고 있으니 시인의 마음은 어느덧 다정한 會眞詩의 창작을 갈망하게 된다.³⁶⁾ 고적한 분위기를 일신하고 진정을 담은 창작을 시도하게 됨은 수선화가 발하는 남다른 기품과 절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張耒의 다음 작품은 수선화의 아름다운 자태, 신비로운 전설, 맑은 기품 등을 두루 언급한 후 자신의 신세의식을 투영하는 것으로 운미를 마감한 작이다.³⁷⁾

「水仙花」(수선화)

宮樣鵝黃綠帶垂 궁정의 거위처럼 담황색 꽃에 푸른 잎 드리웠는데
 中州未省見仙姿 이 꽃의 고운 모습 일찍이 중원에서는 보지 못했어라
 只疑湘水綃機女 마치 상수의 비단 짜는 여신과도 같고
 來伴清秋宋玉悲 맑은 가을에 퍼지는 송옥의 슬픔과도 같아라

수구에서 수선화의 꽃과 잎을 ‘궁정에서 기르는 어린 거위의 담황색(宮樣鵝黃)’에 비유한 것과 수선화의 자태를 상수의 비단 짜는 여신과 같은 영롱한 모습에 비유한 것이 이채롭다. 이 시를 창작한 시인의 의지는 말구에 있으니 이른바 ‘宋玉悲秋’³⁸⁾처럼 두 차례나 꺾적당해 뜻을 이루지 못한 張耒 자신의

36) 趙慧文은 『歷代詠花草詩詞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5.) 제20쪽에서 “古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수고본의 마지막 네 구는 이와 다르다. : 만 리 북쪽 물가에 구름이 일고, 홀로 있는 그대 무엇을 생각하는가. 오로지 동산 안에 한 객 만이, 다정하게 會眞詩를 지을 줄 아누나.(古宮博物院珍藏此詩手稿, 最後四句有異: 萬里北渚雲, 亭亭竟何事. 惟應園中客, 能賦會眞詩.)”라는 내용을 신고 있어 참조가 된다.

37) 이 시 「水仙花」의 시제 하에는 다음과 같은 주를 달려 있어 작자의 남다른 애호를 발견할 수 있다. “수선화 잎은 金燈(까치무릇, 山慈菇)처럼 빛나고 윤기가 있으며, 꽃은 옅은 황색인데 그 줄기는 원추리와 같고, 가을이 깊어지면 피었다가 봄이면 벌써 시들어 비록 서리와 눈에도 쇠하지 아니하나 중원 땅에서는 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명 ‘雅蒜’이라고도 한다.(水仙花葉如金燈而加柔澤, 花淺黃, 其幹如萱草, 秋深開至來春方已, 雖霜雪不衰, 中州未嘗見. 一名雅蒜.)”

신세를 진고의 수법을 통해 표출하고 있음이 발견되는 것이다. 영롱한 수선화의 자태를 묘사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비감을 대비하는 수법을 활용함으로써 기탁한 작품이다. 수선화를 통한 서정의 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작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

宋代 理學家 朱熹의 시가 중 水仙花의 형태 뿐 아니라 수선화가 지닌 남다른 절조를 주목한 작품이 있다.

「賦水仙花」(수선화를 노래하다)

隆冬雕百卉	겨울이라 모든 꽃들이 시들었는데
江梅歷孤芳	강가의 매화만 외롭게 피었구나
如何蓬艾底	저 봉창 밑에 있는 꽃은 어떠한가
亦有春風香	이 꽃 역시 봄바람에 향기를 머금었네
紛敷翠羽帔	얽은 비춧빛 깃털처럼 화려히 훑날리고
溫艷白玉相	따뜻하고 예쁜 꽃 마치 백옥 같은 모습이라
黃冠表獨立	여신의 노란 머리 장식 같은 꽃술은 홀로 우뚝 서
淡然水仙裝	담담하게 수선화를 꾸미고 있네
弱植晚蘭蓀	연약하게 심어져 蘭草와 蓀草처럼 자라나나
高標摧冰霜	고아한 기품은 얼음과 서리를 압도하네
湘君謝遺襟	湘水の 여신은 자신의 내의를 애인에게 양보했고
漢水羞捐璫	鄭交甫는 漢水가 언덕에서 귀걸이를 건네주었네
嗟彼世俗人	안타깝다 저 속세의 사람들이여
欲火焚衷腸	정욕이 불처럼 타올라 창자를 다 태워서
徒知慕佳冶	한갓 아름답고 요염한 것을 사모할 뿐이라
詎識懷貞剛	어찌 정절과 굳은 절조를 알겠으며
淒涼柏舟誓	詩經 「柏舟」의 죽어도 변치 않는 열녀의 처량한 맹세와
惻愴終風章	詩經 「終風」의 정숙한 여인의 서글픔을 알겠는가
卓哉有遺烈	훌륭하도다 강렬한 가르침의 전래여
千載不可忘	이는 천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이라

전반 8구에서 수선화의 형상을 이야기하였고 이어 후반 12구를 통해 수선화가 지닌 절조와 품격을 칭송하고 있다.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우

38) 宋玉, 「九辯」: “슬프도다! 가을의 기운이여.(悲哉秋之爲氣也.)”

는 매와의 의기를 칭송하지만 수선화 역시 봉창 밑에 피어나서 말없이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어서 수선화의 잎, 꽃, 꽃술 등으로 이어지는 세부적인 묘사를 가함으로써 점입가경의 자태를 그려냈는데 활용된 ‘淡然’, ‘蘭蓀’, ‘高標’ 등의 표현을 보면 시인의 궁극적인 의지는 수선화 미모의 형상화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선화의 자태 이면에 담긴 고아한 품성을 찾아내고 칭송하며 깨달음을 얻는 것에 공력을 들였으니 후반부에서 활용된 湘夫人, 鄭交甫 등의 신선고사³⁹⁾와 『詩經』 「柏舟」, 『詩經』 「終風」 등의 열녀 묘사⁴⁰⁾는 수선화의 고아한 덕성과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전고활용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고 싶은 哲理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수선화의 자태를 심층적으로 잘 표현하면서 그 속에 담긴 진리까지 포착하고 있어 수선화의 가치를 한껏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못 꽃들은 화사한 자태로 타인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면이 있는데 의기를 지닌 꽃은 기다림과 인내의 덕을 발휘하며 자신의 존재를 천천히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찬 눈을 뒤집어쓰고 인고의 세월을 지내다가 꽃망울을 피내는 매화, 평소에 진한 향기만 풍기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꽃의 자태를 보여주는 난초, 가을이 깊도록 그 향기와 자태를 유지하며 은은한 기품을 선사하는 국화 등이 그러한 기품을 보여주는 꽃이다.⁴¹⁾ 수선화 역시 매화처럼 내한의 고독한 시간을 감내한 氣節을 소유한 꽃이다. 아름다운 자태와 은은한 암향을

39) 屈原, 『楚辭』 「湘夫人」의 “나의 옷옷을 강물에 던져 주었고, 나의 내의를 禮水 강가에 주었네.(捐余袂兮江中, 遺余褌兮禮浦)”라는 구절과 葛洪, 『神仙傳』에서 “鄭交甫가 한수 물가에서 노닐다가, 두 여인을 만나 패옥을 풀어서 서로 주었다.(鄭交甫游于漢皋, 遇二女解珮珠相贈.)”라는 구절을 응용한 시구이다.

40) 『詩經』 「柏舟」에서 “늘어진 저 두 갈래 긴 머리, 실로 나의 남편입니다. 죽어도 다른 생각 갖지 않겠습니다.(髧彼兩髦, 實維我特. 之死矢靡慝.)”라고 한 여인의 굳은 절조와 『詩經』 「終風」에서 “바람 사납게 몰아치듯 하다가도 나만 보면 히죽 웃으며 조롱하는 그 이. 함부로 농지거리하고 희롱만 일삼으시니 이내 마음 슬퍼지네.(終風且暴, 顧我則笑. -謔浪笑敖, 中心是悼.)”라고 하며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인네의 슬픈 노래를 활용한 부분이다.

41) 줄고,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해당화 이미지」,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2014. 2.) 참조

자랑하지만 내면에는 청순하고도 고아한 기백을 소유함으로써 시인들의 정신적인 품격에 지대한 영향력을 제공한 표상이 된 꽃이었다. 살펴본 것처럼 역대 문인들은 수선화의 기품을 특별히 주목하여 元代 邵亨貞이 “빙설 같은 자태 마치 스스로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 같아, 신선의 자태가 세상의 먼지에 더럽혀지지 않았음을 알겠노라.(冰霜如許自精神, 知是仙姿不汚世間塵.)”(「虞美人·水仙」)라고 하여 수선화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노래하기도 하였고, 元代 陳基는 “예로부터 수선화는 『詩經』 關雎의 덕을 이어온 꽃이요, 漢水 가에서 노니는 여인을 예의로 거절함 가르치는 꽃.(終古關雎遺德化, 禮防游女漢江濱.)”(「題水仙」)이라 하여 貞女の 이미지를 지닌 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清代 曹貞吉은 “수선화의 외면은 얼음을 새겨 넣은 것 같아, 눈을 재단하여 옷을 만든 듯, 『詩經』 關雎의 요조숙녀 같구나.(鏤冰作面, 剪雪爲衣, 溪畔盈盈女.)”(「解語花·詠水仙」)라고 하여 그윽하고 품격 있는 요조숙녀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수선화의 단아한 자태 내면에 간직한 인내와 정결한 절조는 은은한 기백과 인품을 사모했던 시인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녔고 어려운 시국이나 불우한 생을 살아나갔던 시인들의 서정과 의기를 나타내는데 있어서도 더할 나위 없는 시사점을 지닌 꽃이었음을 특기할 수 있겠다.

Ⅲ. 결어

중국인들은 고래로 水仙花에 대해 다른 꽃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여 왔다. ‘水仙’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꽃 자체보다는 水神의 고사가 먼저 형성되었고 여기에 각종 신령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투영되어 神女, 신선, 세속초월의 존재 등 세인의 의식을 뛰어넘는 선계의 꽃으로 이미 지 형상화를 지속해 온 것이 특기할 만한 점이라 하겠다. 宋代 이후 수선화가 본격적으로 꽃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이전까지 중국 시문에서 수선화는 ‘水神’의 범주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후대 수선화 시문의 내

용 역시 ‘水中之仙’의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표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수선화는 꽃 자체가 아름답고 기품이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희고 깨끗한 꽃, 여유롭게 늘어진 비췌빛 푸른 잎, 맑고 고운 담황색 꽃술, 파와 마늘을 연상시키는 몸체와 구근 등은 가히 못 꽃들과 비교해도 절대 지지 않는 미색과 매력을 지녔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고운 자태를 지닌 꽃을 대하는 작자의 마음 역시 천상의 선녀를 대한 듯 청아하고 고아한 운치에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된다. 또한 한겨울의 서리와 한파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를 감수하고 단아한 자태를 이루어내며 암향을 발하는 강인한 성품과 의지는 시인들에게 존재 이면에 담긴 다양한 교훈과 감동까지 느끼게 한다. 역대 시문을 통해 본 수선화는 신비로움을 간직한 꽃인 동시에 새봄의 희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고 고결한 선비의 품성을 깨닫게 하는 표상이 되기도 했으며 그윽한 정과 비애를 간직한 시인에게 말없는 위안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청초하지만 歲寒의 기백을 담고 있고, 민가 근처에 평범하게 피어있지만 선계의 신비함을 느끼게 하며, 보색 같이 영롱한 자태로 한없는 미감을 느끼게 하는 꽃, 이것이 바로 수선화가 소유한 평범하면서도 개성적인 매력이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60.
- 趙慧文, 『歷代詠花草詩詞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5.
- 徐曄春, 『觀花植物千種經典圖鑑』, 吉林: 吉林出版集團, 2012. 11.
- 金 波, 『花卉寶典』,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2006. 1.
- 기태완, 『花情漫筆』, 서울, 고요아침, 2007.
- 김태정, 『우리 꽃 백가지』, 서울, 현암사, 1990.
- 손광성, 『나의 꽃 문화 산책』,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朱明明, 「中國古代文學水仙意象與題材研究」, 南京大 碩士論文, 2008. 8.
- 侯榮榮, 「水仙」, 文史智識, 2012. 1.
- 郭遠慶, 「水仙詩話」, 中國花草園藝, 2001. 1.
- 柴繼紅, 「試論宋代的水仙文化」, 名作欣賞, 2010. 10.
- 高 峰, 「論中國古代的水仙文學」, 南京: 南京師大學報, 2008. 1. 제1기.
- 王曉皎, 「論中國古代文學中水仙的人格象徵初探」, 瀋陽: 青年文學家, 2009. 제21기.
- 졸 고,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해당화 이미지」, 서울: 중국학연구 제67집, 2014. 3.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and imagery of Daffodils in Chinese classical Poetry

Bae, Daniel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tudy the various symbols of the daffodils in ancient Chinese poetry. Daffodils have various common names including daffodil, narcissus, and jonquil are used to describe all or some of the genus in western. Daffodils grow from pale brown-skinned spherical bulbs with pronounced necks. The leafless stems, appearing from early to late spring, each flower has a central bell-, bowl-, or disc-shaped corona surrounded by a ring of six floral leaves called the perianth. There are two kinds of daffodils in China, and the flower was received full of love by many people. The various symbols of the daffodils in ancient Chinese poetry are summarized as that :

The first, the daffodils have legend about the spirit of water like Xiang river(湘夫人), Han river(漢女), Mi-fei(宓妃) etc. Due to the legend, the daffodils have numinous imagery by all people, and have represented the nobility in expression of Chinese poetry.

The second, the daffodils have maintained the purest beauty like white snow in itself, it means that the daffodils full of expression of beauty and dignity, and the poetry of daffodils are generally expressed the symbol of clearness, elegant, noble, highbrow.

The third, the daffodils also have attribute of cold hardness and strength, so the poems of daffodils are very often means of the expression of patience and integrity. Since the flower have endured intense cold through winter and blooms in early spring, it has also become a symbol of patience and integrity. The poets often express as the symbol of noble mind and honor, and the poets took off their hat to daffodils' perseverance, and can get powerful feelings of endurance by composing the poems about his own lonely conditions and emotion.

Key Words : Landscape poetry, daffodils, Symbols in poetry of daffodils, the expression of flower, Sense of beauty, Ancient Chinese poetry

투 고 일 : 2014. 5. 10. / 심 사 일 : 2014. 5. 20.~ 2014. 6. 15. / 게재확정일 : 2014. 6. 20.